

故 장경일 목사의 마지막 말...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



원패밀리처치에서 진행된 고 장경일 목사의 천국 환송예배 ©유튜브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회장이었던 고 장경일 목사의 천국 환송예배가 지난 20일, 고인이 담임하던 원패밀리처치에서 진행됐다. 천국환송예배는 남가주 지역 목

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수 참여해,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고인을 추모했다. 천국환송예배는 원패밀리처치 김흥기 집사의 사회로 실크 웨이브

원패밀리처치에서 천국환송예배 진행돼

미션 김진영 선교사가 기도했으며, 사무엘 리 집사의 조가와 서장원 안수집사의 조사에 이어 신승훈 목사(주님의 영광교회)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신승훈 목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고인은 예수님 안에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는 고인을 바라본다”며 “고인이 소망하던 꿈이 원 패밀리처치를 통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증경회장 김현수 목사는 “고인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마치고 수 많은 믿음

의 유산을 남기셨다”며 “고인의 선교 열정을 따라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유가족인 리사 장 사모는 예배 후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남기는 말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마음일 텐데, 장 목사님께서 마지막 호흡이 힘들 때 하신 말씀은 ‘곧 만날 거야.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강건하라’였다”며 “장 목사님의 소명과 비전이 선교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 모두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천국환송예배는 토랜스션 한목자교회 김현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고 장경일 목사는 1981년 부모님과 도미해 UC얼바인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뒤늦게 목회를 시작했다. 2001년 부터 2007년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부목사로 사역했고 2007년에는 남가주 사우스베이 지역에 원패밀리처치를 개척해 제자훈련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세계 선교를 위해 힘써왔다. 더불어 개교회 성장보다 지역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 연합에 비전을 품고 지역 교회연합회를 섬겨왔다.

고 장경일 목사는 1월 18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세인트 존스 병원에 입원했고, 코로나19로 확진 받아 투병하던 중 2월 11일 새벽 3시 향년 53세로 소천받았다.

김동욱 기자

미국인 35% “팬데믹 동안에 성경 더 자주 읽어”

25세에서 35세의 절반 이상 성경 읽기 증가

‘바이블 소사이어티(Bible Society)’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전보다 더 자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미국 노스캐롤라니아 살렛시에 본부를 둔 ‘크리스천리서치 인스티튜트(Christian Research Institute)’가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35%)은 “대유행 기간 동안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답했으며, 그 중 25~34세(53%) 연령대가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42%는 팬데믹 동안에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졌다”고 답했으며, 45~54세 연령의 절반(49%) 가까이 동의했다.

응답자의 28%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답했으며, 3분의2 (63%)는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 “정신적 행복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4분의 1(23%)로 나타났으며, 특히 24세에서 34세에서는 47%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16세에서 24세의 3분의 1은 성경 읽기가 “외로움을 덜 느끼

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24세에서 34세 사이의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7%)는 성경을 통해 “정신 건강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기독교인 응답자의 절반은 성경을 이전보다 더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5%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읽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기독교인 중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경을 가까이했다”는 응답은 25~34세, 35~44세에서 각각 27%와 32%로 집계됐다.

또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59%)은 팬데믹 기간에 성경과 관련된 영상을 더 시청했다고 답했다.

‘바이블 소사이어티 온라인 바이블 강좌’의 저자 앤드루 올러턴



(Andrew Ollerton) 박사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성경은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기준점으로서, 우리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마치 바다에서 모든 것을 느낀 후, 그 위에 설 바위가 있는 것과 같다”며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성경이 인내와 행복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강연숙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정,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APPLY or TRANSFER NOW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GOD FIRST SINCE 1899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2021 세계기도일 예배, 올해는 '바누아투' 위해 기도

3월 5일(금) 오후 5시
온라인 기도회 진행

매년 미주 한인교회여성연합회가 주관하는 세계기도일 예배가 3월 5일(금) 오후 5시(미 서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미 전역을 비롯해서 세계 180여 개국에서 동시에 드러지며 올해는 "건조한 토대 위에 세우라!"(마 7:24-27)라는 주제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 공화국을 위해 기도한다.

바누아투 공화국은 1980년 영국과 프랑스 공동식민지에서 독립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로, 8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뤄졌다.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해 있어 지진과 사이클론, 화산,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잦다.

또한 독립할 때 까지 법적인 신분이나 권리, 여권, 토지 소유권 등이 없었던 무국적 상태의 나라였다.

미주 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 지부 회장 유화진 권사는 "사회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 지부 회장 유화진 권사(가운데) ©기독교일보

적, 정치적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 바누아투 여성들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한다"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누아투 여성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유 권사는 이어 "세계기도일 예배

는 초교파적인 모임으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며 "인종과 문화, 성별과 빈부, 전쟁과 분쟁을 넘어 세계 평화와 인권, 자유를 위해 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세계기도일 예배는 세계 180여 나라의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금요일에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초교파 연합예배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지구 자전과 함께 24시간 여성들의 기도가 이어진다.

134년 전인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 장로교 국내선교부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했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만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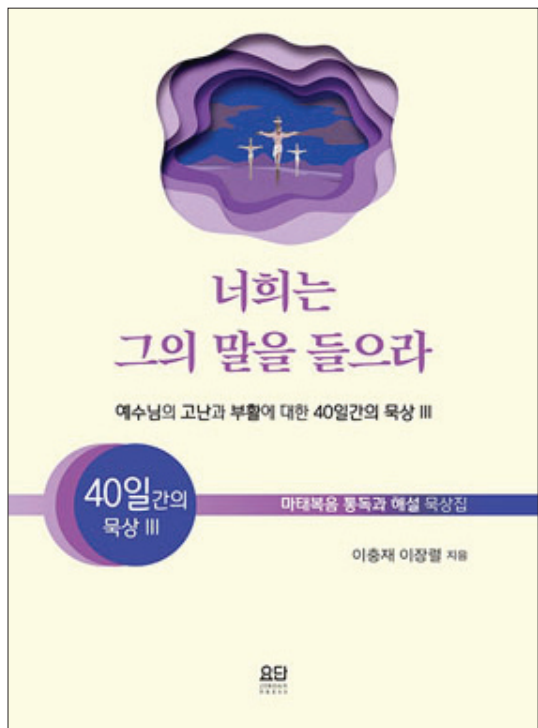
미주 한인교회 여성들은 1979년 뉴욕 기도회를 시작으로 1984년 조직된 미주 한인교회여성연합회가 매년 70여 개 지역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다.

문의: 562-569-9133

김동욱 기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신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귀한 보물을 발견했다. 마태복음을 40일간 통독하고 저자의 해설과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한 신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가 바로 그 보물이다.

이 책은 통독 해설 묵상이라는 익숙한 듯 새로운 형식을 통해 마태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이 마음과 삶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은 지난 감사절과 성탄절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와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을 펴내어 팬데믹 기간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데 유익을 준 이충재 교수와 이장렬 교수가 다시 한 번 팁을 이뤄 공저했다.

책 제목인 "너희는 그(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음성이다(마태복음17:5).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명하실 만큼 제자들에게 필수적이다. 이 책은 마태복음 전체를 40일 분량으로 나누고 본문 진행 순서에 따라 묵상하도록 배열하였다.

복음서를 전공한 두 저자의 깊이

있고도 간결, 명료한 해설이 날마다 곁들여져 있으며 마태복음 이해에 깊이를 더해 주는 20편의 '마태복음 이해 업그레이드'가 추가되어 있다. 나아가 40일간 매일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이 제시되어 영적 사색과 기도를 돕는다.

복음서를 전공한 두 교수의 해설과 묵상이 탁월한데다 가독성이 뛰어나고 밀도 있는 내용 역시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 특히 묵상을 위한 질문은 마음을 파고든다. 마태복음 통독과 말씀묵상은 물론이고, 신학생과 목회자의 성경공부 및 설교자료로도 적극 추천한다.

글로벌 팬데믹의 터널 가운데 아직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처럼 다가오는 이 책과 함께 40일간 마태복음 통독 묵상 여정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책과 더불어 마태복음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뜻 깊은 일은 없을 것이다.

저자 이충재 교수는 현재 미국 뉴저지 동부개혁신학교(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

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이수했으며, 고든콘웰신학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 석사학위를, 서튼침례신학대학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마태복음의 회개(돌이킴)를 주제로 한 박사 학위 논문을 Wipf&Stock에서 출판하였다. 지도교수인 조나단 페닝턴 박사의 산상수훈 주석을 번역한 「산상수훈과 인간변영」을 출간하는 등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와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이장렬 교수는 2010년부터 캔자스시티에 소재한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

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B.M.)를 졸업하고 서튼침례신학대학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영국 에딘버러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신약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독일 튀빙엔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에서 연구하기도 했다. 학문적 저술 외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1·2」, 요한복음 21장을 21회에 걸쳐 묵상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1-2장에 집중한 「25일간의 성탄 묵상」, 바디메오 본문(막 10:46-52) 일곱 절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담은 「바디메오 이야기」 등 성도들의 성경 이해와 말씀 묵상을 돕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 및 공저했다.

이충재 교수, 이장렬 교수 저
요단출판사 | 352쪽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립니다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한인대학 최초 ATS 정회원 ITS신학대학원에서 비전을 이루어가세요”

ITS신학대학원 부총장 겸 한국어프로그램 디렉터 김만테 교수

LA 한인타운에서 동쪽으로 20마일 웨스트코비나에 자리한 ITS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www.itsla.edu)은 북미 한인대학들 중 2006년 최초로 ATS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인가를 받았다. 작년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 프로그램을 새로이 구성하여 교민사회 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사역자로 교육 훈련하고 있다.

또한 코비드 19로 인해 강의실 수업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ITS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차질없이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프로그램 디렉터를 새로이 임명하여 교민사회와 글로벌 선교를 위해 힘찬 교육사역을 새해에 시작하고 있다. 이하는 부총장 겸 한국어프로그램 디렉터인 김만테 교수와의 일문일담.

- 부총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리랑카 선교사로 사역한 후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수학하여 선교학 Ph.D 학위를 2006년에 받았습니다. 불교권인 스리랑카의 문화와 종교를 선교의 관점에서 연구 분석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국제적인 학술 출판사인 피터랭 (Peter Lang)을 통해 스위스를 포함하여 5개국에서 The Puberty Ritual in Sri Lanka: A Comparative Exploration of Perceptions and Attitudes Between Buddhists and Christians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세계 70개국 이상의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스리랑카복음주의협의회 (NACEASL)를 통해 Christian Missions: Worldview and Cultural Approach라는 제목으로 세계선교, 불교권 선교, 한국 선교를 다룬 책이 스리랑카어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풀러신학교대학원에서 선교학 강의와 한인대학에서 선교학 교수로 교무처장으로 일해왔고 미국내 한인대학들을 위해 대학인가 컨설턴트로 섬겨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ITS신학대학원 부총장 및 한국어프로그램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 코비드19로 인해 대학들도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ITS는 어떻게 됩니까?

ITS는 감염위험 때문에 작년 여름학기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100% 전환하여 원활히 교육을 제공해 왔



ITS 본교 캠퍼스

습니다. 사실 코비드 훨씬 이전부터 미국대학들은 온라인 교육을 계속 확장해 왔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편리한 온라인 교육이 IT테크놀로지와 교육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캠퍼스 강의실 교육과 다름없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ITS 신학대학원이 정회원으로 속해있는 연방인가기관 ATS의 조사에 따르면 북미 신학교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온라인 과목 수강생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ATS 회원 신학교들의 전체 학생수는 11퍼센트 감소했지만 온라인 과목 등록학생수는 200퍼센트 증가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미국대학 전체 과목 등록은 4.4퍼센트 감소했지만 온라인 과목등록은 17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비즈니스트렌드 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온라인교육시장 매출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2천4백7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은 현시대의 트렌드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은 결코 차선책이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 교수와 학생들간에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학습이 강의실보다 오히려 더 활발할

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교육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 현시대의 온라인 교육 추세에 대하여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ITS에서의 온라인 교육방식은 어떠한가요?

ITS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Zoom이라는 화상회의, 화상수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무들(Moodle)이라는 온라인교육포털 사이트에서 모든 수업 리스트가 게재되고 학생들이 수강과목을 클릭하면 바로 Zoom 실시간 화상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은 자동으로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언제든지 시청하며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시간 수업이므로 교수들과 학생들은 아무런 구애없이 질문하고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4, 5명씩 그룹으로 나눠서 조별 토의도 가능합니다. 교수는 각 그룹별 화상 토의방에 들어가 토의를 관찰하고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캘리포니아 UC 대학들의 온라인 수업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무들 사이트에 제출하고 토

론 주제에 대하여 답글을 올리고 서로의 견해에 대해 응답을 하고 교수가 총평을 합니다. 시험도 온라인 상에서 정해진 시간에 치릅니다. 강의실에서의 수업의 모든 부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구현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편리성이 온라인 수업의 강점입니다.

- ITS 한국어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인지요?

ITS는 MATS (신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최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경과 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스도인로서의 인격과 삶, 사역자로서의 전문성, 세계선교에의 헌신을 추구합니다. 교수진들은 각 과목 분야의 박사학위자들로서 20년 이상의 사역 경험을 가진 분들입니다. 선교학 교수를 예로 들면 미전도 종족과 선교제한 국가들 속에서 20년 이상 사역하면서 장벽들을 돌파한 경험을 선교원리 및 이론과 통합한 분들이 강의합니다. 상담학의 경우도 상담학 PhD를 소지하고 목회현장에서 오랜 상담을 해 오신

분이 강의합니다. 성서신학 분야도 신학 이론에 머물지 않고 오랜 목회사역을 통해 신학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수렴된 분들이 강의합니다. 결국 성경중심, 현장과 경험, 체계화된 이론과 방법론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ITS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한편 한국의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협력하여 순복음 및 오순절 교단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ITS는 부르심을 따라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역 현장에서 재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기 원합니다.

ITS는 모든 신입생 25퍼센트, 목회자 30 퍼센트, 선교사님들에게 40 퍼센트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 ITS는 유학생들에게 I-20를 발급하고 있고 편입이 가능하다. 2021년 4월5일부터 한국어프로그램 봄학기 10주가 진행된다. 2월15일부터 3월5일까지 3주 동안 원서접수를 받으며 3월12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다. IT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itsla.edu에 있으며 자세한 문의로는 한국어프로그램 입학과 admin.kor@itsla.edu, 562-741-



ITS신학대학원 김만테 부총장

8465로 문의하면 된다.
ITS신학대학원 본교주소:
540 East Vine Avenue, West Covina, CA 91790
홈페이지: www.itsla.edu
한국어프로그램 입학안내 admin.kor@itsla.edu, 562-741-8465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의연히 밝힌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세우신대), 주선애교수(성신대 영종교수), 이영희교수(세우신대), 송명영목사(복음선교회), 김준목사(유월리교회), 신정민목사(복음선교회), 유관익목사(동명교회), 김인식목사(KCC공릉교회)

* 영의 책은 아메리카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영양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영/영과 수련) 빛은 그늘 의연히 밝힌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선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금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과,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크라우드: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달려서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jyk@gmail.com

www.marhlaw.com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95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9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보내온 선교편지”

필자의 어언 20년 지기가 된 김세현 선교사 가정. 15년 전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사 파송받아 갈 때 50살이 다 되어서 선교사로 간다고 농담 반으로 늦었다 했던 분. 필자는 그보다 더 늦은 나이에 선교사 파송을 받을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시어 우간다 땅에서 지난 10여 년간 놀라운 일을 펼치고 계신다. 안식년을 갖고 돌아와 보면 그의 선교편지를 나누고 싶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 1. 무더운 건기 중 제일 심각한 시기를 비 한 방울 없는 리라 선교센터에서 이들과 같이 지냅니다. 시장에 나가봐도 먹거리가 그리 잘 보이지 않아서 아내 노미정 선교사는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구마도 있고요. 양파, 감자도 있습니다.
- 2. 선교지에 돌아오니 많은 동역자들이 인사차 문안을 옵니다. 참으로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파파라고 부르면서 손에 닭이나 바나나를 들고 빈손을 보이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 3. 오늘은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짧은 글을 씁니다. 바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부산 한울교회 (제인출 목사 시무)의 지원으로 신학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된 바질. 초등학교 교장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사직하고 신학공부에 올인한 바질. 너무나 행복합니다.
- 4. 지난달에 2살 반 된 딸은 말라리아로 천국 보내었습니다. 바질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6-8이 본인의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라고 십여 년 전에도 첫 딸이 반년을 살다가 천국 갔는데 집 마당에 두 딸을 묻었다고 합니다. 남은 아이들에게 무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타락했으니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라고.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을 꼭 읽고 살아야 한다고 예배한다 합니다.

- 4. 이런 코비드 시대에도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고 해요. 주변 모든 교회가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주님 찬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옆집 성도가 동참했습니다. 본 교우들이 교회 단했으니 목사님 집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 명에서 20명, 30명, 그리고 50명까지 계속 모여들어 주님 찬양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공식적으로 정부 허락하에 본 교회 아아라 교회에서 맘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시대에 셀 모임을 하는 중에 헌신된 종들을 만나서 교회가 새로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인 중심으로 12명이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 5. 간증을 듣노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전화를 잃어버려 자주 파파에게 소식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쓰라고 스마트폰을 한 개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던 옷도 챙겨 주었습니다. 구충제도 주고 김천제일교회서 받은 방수용 잠바도 한 개 주니 얼마나 크게 웃는지요!
- 6.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됩니다. 이런 동역자를 보게 됨을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코비드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021.2.10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지에서
김세현 노미정. 아들 준형
드립니다.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⑥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교회사에서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이어 당시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동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안타키아(Antakya)로 부르는 안디옥(Antioch)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 수도였고 로마 군사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로마황실의 관심도 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내륙 교통망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중요한 지역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실루기아(Seleucia) 항구에서 48킬로미터 떨어져서 해상교통도 좋았습니다. 헬라와 로마 문화가 꽃피고, 빈번한 무역이 왕래하는 국제 도시 안디옥은 복음을 수출하기에 최적화된 도시였습니다. 선교적 인프라가 잘 구축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은 주전 300년경 시리아를 통치하던 셀류코스 1세가 건설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안디옥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셀류코스 1세가 아버지를 기념하여 세운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 남침례교 신학교(The Southern Baptist Seminary) 신약 교수인 폴힐(Dr. Polhill)박사는 16개의 안디옥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다른 고대 도시들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이 돌 이상의 노예를 두고 살았습니다. 안디옥은 외부와 연결된 도로망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 도로망도 상당 수준 발달했으며 특히 오론텐스 강을 이용한 수로로 교통과 상수도 시설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안디옥의 생활은 윤택하였습니다.

특히, 오론텐스 강을 따라 16킬로미터 정도에 걸쳐서 늘어서 있는 안디옥의 호화주택 유적은 시민들의 부유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안디옥은 고대 도시들 중에 가장 발달된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론텐스 강물을 활용한 도시의 상수도 시설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안디옥의 역사를 살펴보면 안디옥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던 다인종 도시였습니다. 흑자는 동방의 모든 인종들이 섞여 살았던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안디옥에는 정복국 로마의 시민들, 문화를 가진 그리스인들, 당시 길리기아에서 살았던 길리기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등지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민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안디옥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국제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주요 행정도시로서 공공질서를 누릴 수 있었고, 적당한 문화와 경제적 번영도 누렸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안디옥은 종교적으로도 다양했습니다. 예컨대 이집트의 이시스와 오시리스, 아시아의 디오니시우스와 사바시우스, 다소의 산탄과 헤라클라스 그리고 페니키아와 시리아의 몰렉 등이었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글거렸던 안디옥이 역설적으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었고 새로운 종교 기독교가 변형할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동양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 안디옥은 교회사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안디옥은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은 그

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전쟁과 이슬람의 지배로 기독교 관련 유적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서두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합니다. 21세기 국제도시로스 앤젤레스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더불어 일하는 교회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권의식이나 민주주의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대를 앞선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흥년이 왔을 때 바나바와 바울 편에 부조금을 보냅니다. 모든 성도(제자)들이 각각 능력대로 (그 힘대로) 부조금을 모아서 두 사람 편에 보내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부조금입니다. 나눔과 섬김에서도 모범을 보인 안디옥 교회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련되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얻었던 성숙한 교회입니다. 기도와 금식의 과정을 통해 첫 선교사의 파송 과정도 성숙하고 세련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성숙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성숙하고 세련된 안디옥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바울과 바나바로 헌신한 교회입니다.

안디옥에는 베드로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동굴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서 선교했다(갈2:11)는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 동굴 교회가 있는 실피우스 산에는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초대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냈던 삶의 흔적입니다. 이 동굴들에는 당시 치열했던 성도들의 삶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주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L.A에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가난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장애, 빈곤 아동을 지원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국가대표 스트라이커가 왜 전문성 있는 선수를 키우지 않냐고요?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 '스트라이커' 오석재 선교사(4)



배모 축구 클럽 (Bemo FC Club)의 선수들과 함께 한 오석재 선교사



지역 사회에서 인기있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할렐루야컵 축구대회 토너먼트'에서 시상하는 오석재 선교사



오 선교사는 축구를 통해 지역 사회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지는 1970-80년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석재 선교사님의 신앙과 삶을 4회에 걸쳐 나눕니다. 오 선교사님은 1978년 축구 인생의 절정에서 위기를 맞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1980년대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축구를 통한 선교 활동을 펼쳤고 1989년 은퇴와 함께 예정고신의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됐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 목회와 축구 선교를 병행했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유소년 축구팀을 양성하며 한국 축구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몇 년 전에 저희 선교 사역지에 우연히 방문하신 한 장로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다. "선교사님은 화려한 축구 선수 경력을 가졌는데 왜? 전문성이 있는 선수를 키우지 않고 대중적인 유,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가요?" 나는 대답하기를 "네, 왜! 저도 유능한 선수를 키워 존경 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싶은 욕망이 없었습니까?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했다. 선수를 키우는 일은 소수의 사람이라 제한적인 반면에 대중적인 클럽을 세워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여 복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필자가 설립한 배모 축구 클럽(Bemo FC Club)의 "배모"(BEMO)라는 용어의 의미는 인도네시아에서 대중교통으로 사용하는 삼륜 오토바이를 말하는데 '영혼을 하나님

께로 운반하는 도구 수단'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다. 배모 유소년 축구 클럽설립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유소년, 청소년들을 스포츠를 통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M(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배모는 축구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참가 회비는 미화로 매월 5달러 정도이지만 이곳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거의 99% 무료 회원이다. 게다가 회원이 되면 유니폼과 축구공, 음료,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매월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주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배모 유소년 축구 사역의 목표는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배모 유소년 축구클럽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자와섬 반둥시(Jawa barat bandung area) 지역에 5개, 자카르타 지역에 1개 등 6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021년에는 반둥시 짜마이(Cimai) 지역에 7번

째 배모 유소년 축구클럽이 세워질 예정이다. 6개 클럽에서는 약 600여 명의 유소년들이 기독교 지도자들 아래서 축구를 배우며, 복음을 듣고 꿈을 키우고 있다.

배모 사역은 이슬람 지역사회에 가장 접촉하기 쉬운 스포츠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부모들과의 만남을 갖고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사회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SNS를 통해 상담과 고민을 나누고 이 가운데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매년 배모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일에는 '할렐루야컵 축구대회 토너먼트'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는데 이 사역으로 지역 사회에 매우 좋은 영향력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선교사로서 배모 축구 클럽 사역을 운영함에 늘 제정의 위기를 벗어 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지만, 조지 웰러의 기도 방법을 좋아하는 나의

신앙관이 어려울 때 마다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역사회에 건전한 스포츠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며 기독교 교육 정성을 바탕으로 지도하기에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와 수많은 간증이 넘친다. 그러나 사역 노출 문제로 모두 말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크다.

한가지 일년 전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말한다면 현자인 기독교인이 배모 사역을 보고 감동을 받아 축구장을 짓을 수 있는 2,500평의 땅과 축구장 언덕 위에 선교관을 짓을 수 있는 300평의 땅을 주셨다. 현재 축구장 공사만 진행중인데 재정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저희 부부와 사역자들과 함께 땅을 고르고, 잔디 씨를 심고, 잡초와 전쟁하며 지쳐 있지만, 그동안 축구장 임대하고 찾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동안 그토록 기도하며 간구하

던 배모 유소년 전용 천연 축구장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지고 있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 필요한 축구장 시설물 구입과 주변 환경공사의 제정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운동장 위 언덕에 축구 선교관도 세워질 제정이 공급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본다.

우리의 땅과 정성이 엉켜있는 축구장에서 유소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며,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우랴!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묵상해본다.

시편 (126:5-6)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배모 파이팅!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배모 파이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낙태금지법 서명 후 주지사와 의원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미국의 '바이블 벨트' 중 하나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최종 승인했다.

AP뉴스는 최근 헨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태아 심장 박동 및 낙태 방지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주 하원은 지난 17일(이하 현지 시간) 낙태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의 연설을 청취한 후에 79대 35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날 이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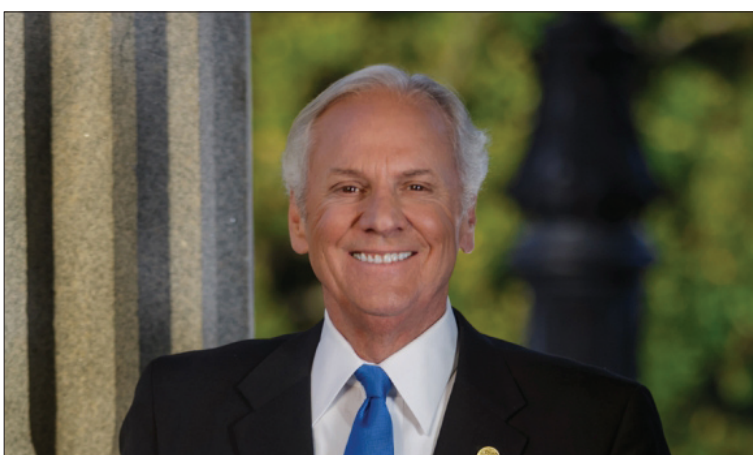
공화당 소속인 맥마스터 주지사는 서명 직후에 "지금 사우스 캐롤라이나 전역에 수많은 행복한 심장이 뛰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 의회 의사당에서 법안을 지지한 의원, 공

무원들과 함께 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했다고 AP는 전했다.

이 법안은 의료진에게 임신 8주 이상이 된 임신부에게 의무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 시술을 할 수 없으며, 강간이나 근친,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만일 불법 낙태를 시행할 경우, 임신부는 처벌이 면제되지만 낙태를 시술한 사람은 중죄로 기소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앞서 12개 주가 통과시킨 낙태 제한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임신 20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연



헨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governor.sc.gov

방법에 의해 주 법안들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모가족계획은 낙태금지

법안에 대해 "거의 50년 동안 정착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

는 특히 미국의 흑인 여성들이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 법안이 저소득 여성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모가족계획 회장 겸 CEO인 제니 블랙(Jenny Black)은 최근 성명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주 법안은 명백히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앨런 윌슨(Alan Wilson) 사우스캐롤라이나 검찰총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법을 강력히 변호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유진 기자

미 텍사스, 30년 만의 한파...주민 도우려 문을 연 교회들



레이크우드 교회 ©Facebook

미국 텍사스 주에 몰아 닥친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4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혹한과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맞고 있다.

외신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텍사스 일부 지역은 영하 18도의 혹한을 기록했으며, 17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텍사스 한파 사망자 수는 31명에 달한다.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텍사스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국 기관들이 이 지역의 재난구호를 조정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혹한과 정전 속에서도, 텍사스 교회들은 한파에 대비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문을 여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고 기독교일영 문판이 17일 보도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끄는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Lakewood Church)는 눈폭풍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교회를 '워밍센터(Warming Center)'로 임시 개조하여 문을 열어놓고 있다.

레이크우드 교회측은 긴급 대피소로서 사전 등록이나 예약없이 누구에게나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회 대변인은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 부서 및 지역 노숙자 단체와 협력하여, 대피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침대, 담요 및 기타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엘 오스틴 목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도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니슨 시에 위치한 세인트 룩 성당회(St. Luke Episcopal) 성당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문을 열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세인트 룩 성당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치 숙박이 가능하며, '센터 크로스 미니스트리(Center Cross Ministry)'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를 통해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 페르셀(Don Perschell) 신부는 교회가 코로나19 예방책을 준

수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커피포트는 밤새 켜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클래인 카운티 웨이코(Waco)에 위치한 '하이랜드 침례교회(Highland Baptist Church)'도 교회를 온난화 쉼터로 개방하고 있다.

뱃티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교회 책임자인 매리 브록(Mary C. Brock)은 "오늘까지 약 60명을 초대했고 날씨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오늘 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회 멤버들은 월요일 저녁부터 24시간 교대로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머스빌(Farmersville)에 위치한 '퍼스트 침례교회'도 피해 주민들을 위해 교회에서 샤워시설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 샌안토니오의 단체와 지역 기관들도 혹한과 정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샌안토니오 지역 노숙인들을 위해 설립된 '언더 더 브릿지 교회(Church Under the Bridge)'는 물론 '라이프 리스톨드 교회(Life Restored Church)'가 피해 주민들을 위해 교회를 개방했으며, 텍사스 중남부의 뷰먼(Beaumont)시의 '빅토리 템플 교회(Victory Temple Church)'도 대피소와 구호품을 제공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아나달코에 위치한 '베델 침례교회'도 이불과 매트리스, 음식과 같은 물품을 제공하는 쉼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토니 에반스 목사, 코로나19 확진에 중보기도 요청



토니 에반스 목사. ©아이콘 미디어 그룹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토니 에반스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20일 미국 기독교일영 영문판에 따르면, 달러스의 오크클리프바이블 펠로우십(Oak Cliff Bible Fellowship) 설립자이자 담임인 토니 에반스(Tony Evans) 목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주일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에반스 목사는 지지자들에게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사무실이 동파됐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임재에 계속 감사드리고 있다. 중보기도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에반스 목사는 "겨울 동파가 텍사스를 강타하면서 많은 이들의 건강, 가정, 회사, 그리고 교회에 큰 피해를 끼쳤다"면서 파이프가 터진 사무실 사진 2장을 덧붙였다.

그는 "보시다시피 파이프가 터지고 시설 전체가 물에 잠겼다. 이 날씨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길 바라며 사진을 공유한다"면서 "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 동파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텍사스는 날씨가 추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에 대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메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음향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포럼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폴리티코, “미 기독교 예언자들, 트럼프 복귀 예고”

Why Donald Trump Supports Public Prayer More Than Any Other President in Recent History

1:00PM EDT 8/10/2019 | STEPHEN STRANG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백악관에서 기도를 받던 모습 / 출처 = 카리스마 뉴스 캡처

미국 은사주의(Charismatics) 지도자들이 올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오순절 교단 목회자인 조니 엔로우(Johnny Enlow)를 비롯해, 테네시 주의 글로벌 비전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인 그렉 로크(Greg Locke), 예언 사역자 컷 커(Kat Kerr) 등이 트럼프의 대통령직 복귀를 예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엔로우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월20일 (대통령)취임 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신은 전 세계 100명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조만간 권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최근에도 그렉 로크 목사가 트럼프는 “100%로 다음 임기에 미국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 말했으며, 컷 커 역시도 트럼프가 선거에서 “압승했다”며 “하나님은 그가 8년 동안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고 거듭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정 투표 의혹이 제기된 7개 주를 순회하는 ‘기도 투어’를 선언한 노스 캐롤라나 예언자 더치 시트(Dutch Sheets)와 테네시 주의 예언 사역자 제프 얀센(Jeff Jansen)도 이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실패한 예언들로 인해, 예언 사역자에 대한 공식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특히 폴리티코는 “미국 유권자의 3분의 2와 공화당원의 3분의 1만이 바이든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어, 사실과 예언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그들의 말들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 틴데일 대학의 교수 제임스 베벌리(James Beverley)는 15년 간 100명 이상의 기독교 예언자들이 트럼프에 대해 예언한 500개 이상을 분석한 결과, 정확도 면에서 낮은 확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의 예언에 대한 광범위한 충성이 미국에서 음모론적 사고를 폭넓게 받아들이도록 부추긴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대선과 1월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기점으로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했던 일부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나섰다.

예레미야 존슨 목사가 대표적이다. 존슨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자신이 예언한 ‘트럼프 재선 승리’와 ‘바이든 후보가 앞서 당선’을 선언했음에도, 난 선거가 끝났다고 믿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유진 기자

“코로나 이후 새롭게 정립된 교회 등장할 것”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의 언론 매체인 ‘크리스천 크로니클’(Christian Chronicle)이 최근 교단 목회자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문은 지난해 기독교 출판사인 ‘21세기 크리스천(21st Century Christian)’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 그리스도의 교회 신자 수가 최근 10년간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 이어 지난해 바르나 리서치가 실시한 ‘기독교인의 온라인 예배 시청률’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첫 두 달 동안, 어떠한 교회 생방송도 시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사실도 다시 되짚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설문결과와 관련, 당시 연구진 대부분이 이들이 ‘당분간 교회를 관둔 사람들’로 확신했다고 해석했다.

애리조나에 위치한 캠퍼스 사역단체 ‘엠베세더즈 포 크라이스트’의 협동 교사인 제시카 키드냅(Jessica Knapp)은 크로니클지와 인터뷰에서 ‘재정의 교회(Redefined Church)’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대유행의 한 가지 이점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볼게끔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조만간 교회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으며 이것이 잠재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키드냅은 단지 “습관을 따라(out of habit)” 교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진정으로 예수를 필요로 하며, 이것을 아는 학생들은 단체에 속하여 이전보다 더 강한 연대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며 “일요일에 짧은 시간을 서로 만나는 가족인지, 아니면 함께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고,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주 소통하는 공동체인지를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네시주 희슨에 위치한 ‘클리어 클릭 그리스도 교회’의 조슈아 디그스(Joshua Diggs) 목사는 “대면 예배와 성경 수업을 위해 돌아오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지만,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동원하는



©Unsplash/Oskar Kadaksoo

데 더 많은 투자를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교회가 최종 도착지(destination)라는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싶다. 그러한 교회는 특정 요일에만 일어난다”며 기존의 교회와는 거리를 두었다.

한편, ‘웨스트 휴스턴 그리스도 교회’의 벤 피켓(Ben Pickett) 담임목사는 과거에는 교회 행사의 성공 여부를 ‘참석자 수’를 보고 판별했다면, 이제는 “행사를 여는 것이 곧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다. 백신이 교회 생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과 새로운 노멀(new normal)의 등장은 (의미)를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이 일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릴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켓은 “코로나19의 패배에 대한 축하는 애도와 슬픔과 함께 올 것”이라며 명망이 공존하게 될 교회의 미래를 예상했다.

이 교회의 예배 담당목사인 닉턴 바(Nic Dunbar)는 코로나 이후에도, 현장과 가상 예배를 동시에 하는 “병행 모델(both/and model)”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면 예배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실제 온라인에서 그들을 찾는 지역 사회 회원들의 참여를 놓치게 되는 반면, 온라인 전용 교회는 현재 상황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놓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연숙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우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이침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인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2인2세를 영육함양하며, 이방인들을 치유하며, 선교를 영감케 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단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예배(델린예배) (소매별)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신자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할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침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 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톨릭)미사(미사)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JCCO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h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현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EM예배 (3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한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광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물 MP제물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금)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수요일예배 오후 8:00(토)
 1584 Hiram St., Northridge, CA 91325 EM: 오후 1:30
 T. (818)935-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이동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s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hvis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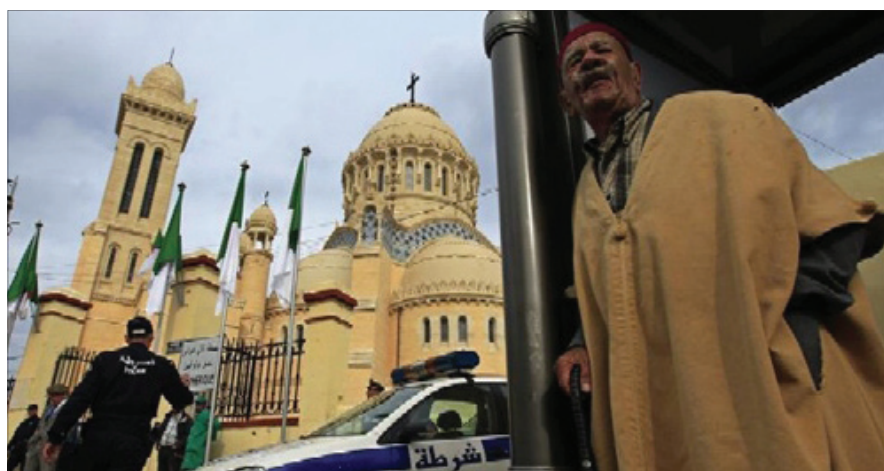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새 정부 들어선 알제리, 기독교 봄은 언제 오나



알제리의 한 교회. ©크리스천 포스트 제공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테너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은 최근 북 아프리카 알제리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특집 기사를 퍼시큐션(Persecution) 2월호에 실었다. 알제리는 2019년 4월, 20년을 장기 집권한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새 대통령에 압델마지드 테반이 당선됐다. 그러나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는 계속되었고, 작년 11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18일(현지시간) 테반 대통령은 대대적인 정부 개편과 의회 해산을 발표하고 나섰다. 퍼시큐션은 알제리에 대해 "헌법을 바꾸고 부패의 종식을 약속했으며, 인권 증진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 알제리가 독립한 이래로 교회를 괴롭혔던 것에 대해 같은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따르면, 기독교는 로마시대에 알제리로 건너왔고, 5세기에는 국가 전체가 기독교화 됐으며, 354년에는 바울 이후에 가장 저명한 기독교 사상이 중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풍부한 기독교 유산에도 불구하고, 1962년 알제리가 독립할 무렵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외국인처럼 느껴졌다"며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주의 이후 자신들의 정체성을 개조하려고 시도하면서 교회의 존재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고 정치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독교인들은 알제리에 남아 있었지만 큰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며 "정부는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유희 내전이 끝난 지 불과 4년 만인 2006년에 알제리 정부는 '무슬림이 아닌 모든 예배를 규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교회의 존재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자생적으로 자라기 시작했다. 매체는 "알제리 정부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개신교 교회마다 방문해 2006년의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나서, 당국은 교회들을 폐쇄하기 시작했다"며 "2018년 말까지 알제리 교회 폐쇄를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해는 교회의 성장을 둔화시켰지만, 결코 그것을 소멸시키지는 못했다. 복음은 지난 30년 간, 베르베르인들(Berbers)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제 더 많은 인구로 옮겨가고 있다"며 "알제리인들은 기독교가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며 기독교가 계속 함께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알제리에서 기독교가 환영받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알제리인들이 답변했다"며 "이제 알제리 정부가 시민들 사이에서 양심의 자유를 환영할지에 대해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6세기 설립 에티오피아 유명 수도원, 폭력으로 약탈·파괴 당해



티그레이 지역의 산 중턱에 위치한 데브레 다모 수도원. ©Wikimedia Commons/Fabian Lambeck

분쟁 중인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수도원이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수도사 1명이 살해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정부군(National Defence Force)과 동맹을 맺은 에리트레아군이 에티오피아 북쪽에 위치한 데브레 다모(Debre Damo) 수도원 내부의 고대 문서 등 유물들을 약탈하고 방화했다고 한다. 이 수도원의 역사는 6세기로 올라가지만 수도원 내부의 전장과 벽돌에는 여전히 벽화가 보존돼 있다. 이 수도원은 에티오피아 정교회 소속 9명의 성인 중 한 명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80피트의 절벽을 올라야 이를 수 있는 장소에 있다. EEPA(Europe External Programme with Africa)에 따르면 이 수도원은 파괴되었으며 에리트레아 군은 수도원까지 올라와서 오래된 문서와 유물들을 약탈했다고 한다. 산 중턱에 지어진 집과 건물들도 다 파괴됐다고 EEPA는 전했다. 또한 "데브레 다모 수도원은 대포 공격을 받았다"라며 "수도사 한명이 사망했고 12개 건물이 파괴됐다. 6명의 에리트레아 군인들은 80피트 절벽을 올라 수도원과

건물 탐색에 나섰다"라고 추가적인 보고를 전하기도 했다.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수도사가 거주하던 오래된 사택 등 (수도원 이외) 다른 건물들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타임스는 "일각에서 이번 공격이 귀중한 유물 등이 풍부한 지역에서 일어난 '문화적 청소'(cultural cleansing)라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구호단체는 수개월간 분쟁이 이어진 끝에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CP가 전했다. CP는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강간을 당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 대외협력 담당자인 에이미 램(Amy Lamb)은 C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지역에서 온 보도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램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종교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리트레아는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1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36위에 올랐다. 이미경 기자

성락교회 원로 김기동 목사 배임·횡령 1년 6개월 실형



김기동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명하는 장면. ©SBS 캡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승빌딩 관련 기소 내용에 대해 배임 사실을 인정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기동 목사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2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판결에서, 먼저 김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여승빌딩을 당시 가액에 비해 25억원 비싼 40억원에 성락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성락교회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이를 아들(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며 “배임죄의 주체이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배임 금액에 있어서는 1심이 인정한 16억여원보다 다소 낮은 8억 6,400여만원으로 판단하면서도, 실질 이득액은 매매대금인 40억원 전부라고 봤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60억원대 목회비 횡령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 목사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4,800만원을,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5,400만원을 목회비로 지급받았으며, 특히 이를 다시 교회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급분이 목회비가 아닌 사례비라는 김 목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 목회비는 목회자의 목회 활동을 위해 교회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판공비’, 즉 공금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사례비는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월급’ 개념이다.

만약 매달 지급된 5,400만원이 목회비라면 공식 목회활동에 썼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사례비라면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총 6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목회비가 아닌 사례비라든 논란의 여지는 있다. 목회자 사례비가 월 5,400만원에 달한다는 것도 예외적이고, 성락교회는 신도립 선교센터 건축 빚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 장부를 열람했던 개혁측에 따르면, 매년 지출 이자만 60~8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교회는 매달 5,400만원 외에도 개인 카드대금, 차량 유지비, 사택 관리비, 운전사 및 가사도우미 급여 등 생활비를 지급해 왔고, 여기에 상당액의 목회자 후생금, 감사 사례금, 포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성락교회는 고액의 건축 이자를 성도들의 헌신으로 충당했고, 분쟁 후에는 ‘금 모으기 운동’, ‘대출 독려’ 등을 해야 했다.

김기동 목사는 공식석상에서 “사례비를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수차례 밝혔고, 교회 분쟁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목회비’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사례비’라고 주장했다.

해당 금액은 1심에서 ‘목회비’로, 2심에서 ‘사례비’로 각각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대웅 기자

한국 노인빈곤율·고령화 속도 OECD 1위

		대한민국	G5
①사회 안정망 (연금)	공·사적연금 소득 대체율*	43.4%(OECD 37개국 중 32위)	평균 69.6%
	연금개시연령	현행 62세 → 65세(예정)	65~67세 → 67~75세
	보험료율	9.0%	평균 20.5%
	세제지원율(납입금 비)	20.0%	평균 29.0%
②일자리 환경	가입률(15~64세인구 비)	16.9%	평균 54.3%
	기회	32개 업종별 파견 가능 기간제 2년 제한	대부분 업종 파견 허용 기간제 무제한 사용(단, 18개월)
비용	해고비용	27.4주치 임금	평균 9.6주치 임금
	주된 임금체계	호봉급	직무 직능급

한국과 G5의 고령화 대응책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8년께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인빈곤율도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OECD 37개국의 고령화 속도와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전망이다. 3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얘기다.

또 2048년엔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 수준은 이미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

보다도 높았다. 한경연은 한국과 G5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해 고령화와 노인 빈곤 대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 등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 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 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G5 국가들은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 지원율도 2018년 기준 평균 29.0%였다. 이중 미국은 41.0%나 됐다.

또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 세제 지원율과 사적연금 가입률이 각각 20.0%, 16.9%에 그쳤다.

또 G5 국가들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67세 사이에서 67~75세까지 높이려고 하지만, 한국은 이제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한경연은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 비용 등으로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고령자 취업이 어렵다며 이런 시장 구조가 노인 빈곤율을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철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새벽예배 매일 4대주 주일 오후 5:30
대학철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철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생명의 나무를 심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c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하게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V)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중보기도회 오전 9:00(화-토)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예배 오전 11:30(철년 영아)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탐 브래디에게 배우는 리더십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많은 쿼터백으로 우승한 진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풋볼이 낮은 분들에게는 재미없는 경기이지만, 풋볼은 다른 구기 종목과는 그 경기 패턴이 다릅니다. 축구나 배구는 그야말로 모든 선수가 발휘해야 할 기량의 뭉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팀워크입니다. 그런데 풋볼은 그 팀워크에 더하여 사령탑이 직접 필드에서 뛰는 경기로서 쿼터백이 그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치들이 계속 작전 명령을 내리지만, 수시로 변하는 필드의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게임을 운영해 가는 책임은 쿼터백에게 있습니다.

풋볼은 마치 두 나라의 전쟁과 같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하며 이끌고 가는 사령탑이 전쟁 승리의 관건이듯, 풋볼 경기는 그만큼 쿼터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퍼볼 승리의 분석에, 탐 브래디가 어떻게 새 팀에 들어가자마자 팀원들의 신뢰를 얻고, 전쟁에서 군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듯이, 모든 선수들이 쿼터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게 되었는지가 모두의 관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던 이전 뉴잉글랜드 팀과는 그의 기량과 코치와 환상적인 호흡이 그 원인이었다면 지금 탐과 베이 팀에서는 탁월한 그의 리더십이 새롭게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쿼터백의 기량은 상대팀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승리 후 인터뷰하는 선수들마다 탐 브래디를 칭찬하며 위대한 선수라고 치켜세우는 것을 보면, 그는 새 팀에서 찾헤에 그 리더십을 보이지 않게 구축했고, 결국 그 리더십이 수퍼볼 우승의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풋볼 경기를 보면서 깨달은 리더십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각고의 훈련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리더십에 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팀원들 모두가 다 같이 최대의 역량을 내도록 이끌어 주면서 같이 경기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자입니다.

얼마 전 미식축구 풋볼 결승전인 수퍼볼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작년 우승팀인 캔자스 시티와 플로리다 탐파베이 팀이 격돌하는 흥미진진한 게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응원하던 뉴잉글랜드 팀에서 탐과 베이 팀으로 적을 옮긴 전설적인 쿼터백 탐 브래디가 새 팀을 데리고 결승전까지 간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젊고 재능이 뛰어난, 시즌 성적이 최고였던 캔자스 시티 팀의 쿼터백과 비교되면서 가장 나이 많은 쿼터백으로 수퍼볼을 뛰는 선수가 된 탐 브래디는, 지난 20년간 뉴잉글랜드 팀에서 화려한 진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명이 다했기에 방출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늘 응원하던 팀이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탐 브래디 선수가 짝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을 응원했던 탐 브래디를 팬데믹 상황에 진행된 풋볼 시즌의 결승전에서 보게 된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미디어와 전문가의 예상을 뒤엎고, 결과는 탐 브래디의 승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7번째 수퍼볼의 승자가 되었고, 가장 나이

몸으로 증거 해야 진짜 됩니다



진유철 목사
나선순복음교회

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직분이나 건물, 전통과 제도의 힘, 외적인 모양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것들을 생명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외적인 모양만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딤후3:1,5) 죽은 신앙이나 잘못된 신앙일수록 외적인 것들에 힘을 부여하고 외적인 직분이나 건물이나 형식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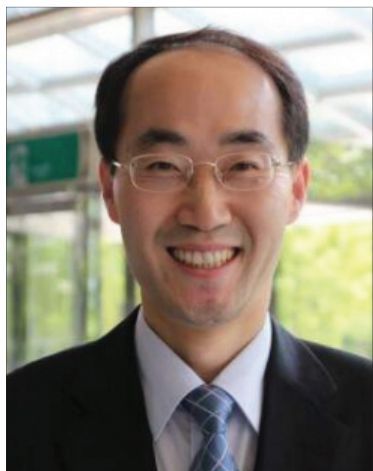
신앙의 외적인 모양이나 껍데기 포장하는 데는 말만으로도 됩니다. 그러나 내면이 예수생명으로 변화되는 진짜 신앙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려 하면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신앙은 머리와 말로는 인정을 하는데도 몸의 행동은 없기에 문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기갑사단의 지휘관으로 혁혁한 공을 세워 사막의 여우라 불리었던 롬멜 장군이 ‘병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훈련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내 몸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가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몸의 행함을 요구하는 것은 진짜가 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인생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미지들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러나고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알아간다. 단순히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체험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과정으로서 특징 지워진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떠한 사랑을 알아가는 신학함의 과정이고, 예배의 현장이다. 인생이 신학교라는 이미지를 한 차원 더 진전시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생이며, 신학자라는 결론에 이른다 (theologianhood of all believers).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롬 8:29).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몸을 산제사 (living sacrifices)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true worshippers)가 되어간다 (롬 12:1-2). 결국 우리 삶 전체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이다.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공간에도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감지한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며, 그래야만 인생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해악을 입지 않는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이라고 노래한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같이 인생의 어떤 특정한 기간이 특별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기간일 수 있지만, 더 넓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롬 8:28)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인생은 실험실 (experimental lab)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개성을 실험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한 배워간다. 우리 자신의 죄성과 연약성,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은사와 재능, 개성과 독특성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신학교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해가는 실험실이다. 우리의 인생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된다. 이 지식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은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 깊은 지혜와 통찰력의 원천이 된다. 동시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땅에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땅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재능과 개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인생은 유격훈련장 (ranger school)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강한 군사들, 영적인 전사들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매우 고되고 힘든 유격훈련과 같이, 인생은 다양한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질병, 인간관계의 실패, 사업의 실패, 경제적 파산, 이혼, 장애 등)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유격훈련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

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병사로 부르셨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엄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3-4).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견뎌내야 한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 훈련의 현장인 것이다.

다섯째, 인생은 지뢰로 가득한 전쟁터이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유격훈련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터 (battle field)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수행한다 (엡 6:12-13). 또한 인생이라는 전쟁터는 온갖 유혹과 함정들이 난무하는 곳이다. 우상숭배,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말, 탐심 등 강력한 유혹이 역사한다. 잘못 디디는 순간 폭발하게 되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뢰들로 가득한 밭과 같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 하라고 가르치셨다. 맞다. 우리는 온갖 시험 즉 유혹에 직면하여 살아간다. 잠시만이라도 한눈을 팔면 즉시로 밧에 걸릴 수 있다. 우리는 이 지뢰로 가득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더욱 더 근신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보해야 한다 (딤후 2:11-14).

여섯째, 인생은 마라톤 경주 (marathon)와 같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 경주하는 자들이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딤후 2:5). 이 경주에서 승리하

는 길은 오직 인내뿐이다. 참고 견디는 것뿐이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다가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그는 패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완주해야 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경주를 완주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빌 1:6).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일곱째, 인생은 선교현장 (mission field)이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제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벧전 2:9)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 하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현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현장 (마 28:18-20),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현장 (행 1:8) 즉 선교의 현장이다. 이 비유를 한 차원 더 진전시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의 현장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일터, 사회, 문화, 국가, 전세계가 선교의 현장이다. 우리가 유지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현장 또한 복음 전도의 현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missionaryhood of all believers). 어떤 선교단체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 풀타임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전문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해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이다 (the sent one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티셔츠
 굿모닝
 머그컵 & 텀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갈렘의 신앙성과

여호수아 14:6-15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여년간 짓밟혀온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기 시작하시고, 유월절이 있는 후 광야로 삼일 길을 걸어갔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지 2년쯤 되었을 때 바란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12지파중 족장된 자 한 사람을 가나안으로 정탐하기 위해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는 길에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중에 절반이 그곳의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보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렘은 유다지파에 속한 후손인데 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왕 바로의 무서운 채찍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아래 해방의 기쁨을 안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일동안 정탐을 마친후 돌아와서 갈렘은 모세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합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자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고 말하며 그 땅을 악평하며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의 말과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생각으로 믿는 것 같지만 말과 행동을 보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열 지파 족장들은 매사에 절망을 앞세우는 비관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시도해 보기도 전에 불가능이라는 생각 속에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보살피심을 받아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2년여를 광야생활을 통해 먹고 입을 것과 건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경향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죽어있고 그들의 앞날은 절망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기술이나 능력, 노력에 기대를 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는 산 믿음의 자세만 확실하면 필요한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시고 뒷바라지 해주신다는 믿어지는 믿음의 소망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이미 그 모든 준비를 다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이란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중략)...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민 14:1-4)”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보고에 절망을 나타내는 무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절망이 항상 그들의 의식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죽음을 부르며 죽음에 젖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 두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나머지 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웃을 찢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중략)...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밭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의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14:7-9)”고 호소합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믿음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많은 시련과 환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믿음을 더욱 믿어지는 연단으로 훈련시켜 오셨으며, 나를 두고 택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정하신 용도사명에 대한 기대를 가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저절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렘의 호소에도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길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민14:11-12)”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중략)...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민 14:13-19)”라고 지혜롭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

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렘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14:20-24)”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주와 축복이 한꺼번에 구분되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4:30-35에서 하나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혀갔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중략)...그 사십 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열 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고 광야에서 구원의 온갖 이적기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지독하게 믿어 살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과연 여호수아와 갈렘처럼 믿음의 성과로 결실할 수 있는 영생복락의 후사가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드나들지만 결국 신앙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꾸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많은 이적기사를 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은택에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뜻과 반대되는 불신앙을 생활의 철학으로 알고 잘못 사는,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시킬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36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려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렘은 생존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갈렘은 85세에 그날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욱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렘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갈렘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정당한 내용을 말했고 결국 그는 그의 밭로 많은 땅을 하나님이 쟁겨 차지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축복을 자녀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이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려주는 엄청난 역사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신앙이 자기 자신만 망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죄 값을 무거운 짐으로 물려주고 저주를 남기고 떠나야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여분네의 신앙성과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3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8)

잇따른 사건 속 한국교회, 더 이상 신뢰 잃지 않으려면

교회 분리와 신자 이탈이 정당화되는 교회 내 범죄 정인이 사건, 한국교회 전반 불신앙과 부덕함 입증 가해자 부모인 목회자 부부, 올바른 처신 감행하든 그제 안 된다면 교단 차원에서 엄정한 권징 시행을

◆교회 분열의 역사: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이 분리된 이유

한국 개신교회는 미국의 청교도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청교도(the Puritans)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은 듯하다.

청교도 신앙이 탄생한 곳은 종교 개혁 운동이 한창이던 16세기 영국이다. 헨리 8세가 아라곤의 캐서린 왕비와 이혼을 시도하다가 로마 교황청과 관계가 악화되어 가톨릭 교회와 연을 끊고 영국 국교회 체계를 설립한 것이 영국 종교개혁의 도화선이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내막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헨리 8세는 제대로 된 종교 개혁을 시도한 바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헨리 8세는 영국 교회의 수장을 교황에서 국왕으로 교체했을 뿐, 가톨릭 교리 전반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영국 국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영국 내에서 진정한 종교 개혁을 원하는 이들, 루터와 칼빈 신학을 추종하며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교회를 새우기 원하던 이들은 영국 국교회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좀 더 온전한 종교개혁을 바라던 이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했다. 첫째는 영국 국교회 내부에서는 도저히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국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는 이

들은 Separatists)이라고 불렸다.

반면 영국 국교회의 테두리 안에 남아서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은 국교회를 '청결하게' 한다(purify)는 의미로 청교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미국 메사추세츠 지역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처음 건너온 이들은 엄밀히 말해 청교도 출신이 아니라 분리주의자 출신이었다.

영국 국교회 안에서는 도저히 신앙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분리주의자들이 네덜란드로 건너가 자신들만의 회중교회를 설립했다가, 네덜란드의 개방적 문화조류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고 여겨 목숨을 걸고 북아메리카 플리머스로 이주한 것이다.

청교도들은 처음에는 분리주의자들과 같이 영국 국교회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았지만, 후일 제임스 1세 시기 청교도들에 대한 압제가 심해지자 분리주의자들이 먼저 건너가 있던 메사추세츠 식민지에 대거 합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청교도들이 분리주의자들을 뒤따라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대거 이주해서 곳곳에 회중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는 굳이 분리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을 분리해 생각할 이유가 없어진 까닭에 결국 모두 합쳐서 청교도로 지칭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교회가 분리된 이유와 그에 대한 후세의 평가다. 당대 영국에서 분리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은 교회 분열을 확실히 하고 국가 정책에 반하는 이들, 교회의 불순분자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후세의 교회사 연구자 대다수는 그들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정인 양 학대치사 가해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 현장. ©KBS 캡처

분리되어 나오기로 한 결정을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며 칭송하게 된다.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에 따르는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분리주의자들의 눈에는 목과할 수 없는 죄악으로 여겨졌고, 이에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공동체, 회중교회를 세우는 형극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분열의 전조: 교역자와 교인들의 죄악이 초래하는 분열과 고통

디트리히 본회퍼 역시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 분리의 결단을 내린 인물이다. 1933년 나치가 장악한 독일의 정국과 그에 환호하던 독일교회의 죄악된 모습을 견디다 못한 본회퍼는 1934년 히틀러의 비윤리적 사상에 반대하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고백교회 설립에 참여한다.

당시 나치는 저명한 신학자인 동시에 열렬한 나치당원이었던 루트

비히 뮐러의 주도 하에 독일 복음주의 교회 설립을 지원했다. 이 교회는 아리아족 중심으로 성경을 개작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며, 나치와 히틀러를 칭송하는 데 앞장서는 만행을 저질렀다.

칼 바르트, 마르틴 니콜라, 본회퍼 등은 이러한 죄악을 자행하는 교회와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 고백교회를 따로 설립하고 이듬해인 1935년에는 '바르텐 선언'을 통해 히틀러를 칭송하는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행각을 '마귀적'이라고 지탄했다.

이들에 대한 현대 교회사학자들의 평가는 당연히 칭송 일색이다. 후세의 기독교인들 모두 이들의 행적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순교적 결단이었으며 그들의 믿음의 정신을 거듭 되새겨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처럼 교회사를 보면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신자 이탈이 정당화되는 사례들이 종종 확인된다. 성경은 항상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 신앙의 일치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특정 교회나 교단이 엄중한 죄악을 범하는 경우, 그리고 그런 죄악을 진정성 있는 회개와 엄중한 권징을 통해 발본색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회에서 따로 분리되어 나와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를 따로 세우는 것 역시 성경적으로 혹은 교회사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다.

물론 이 경우 기존의 교세는 크게 약화된다. 분열을 통해 새로 탄생한 공동체에 소속된 교인들의 수는 대개 소수에 그치고, 이들만이 결국 온전한 교회,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회 혹은 교인들의 죄악이 초래하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이같은 교세 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한국교회가 이처럼 교회 분리가 정당화되는 비극의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교회 내에서 교역자나 그 주변인들이 저지르는 비위와 죄악이 반복적으로 무마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교회는 커다란 내용 끝에 심각한 분리와 신자의 대량이탈 사태를 겪을 것이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욱 약화될 것이다.

정인 양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관심이 한층 사그라든 상황에서, 경북 지역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부모들에 대해 해당 교단과 교회 교인들은 과연 어떤 권징 조치를 내리고 있는가? 또한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양백하게 실패한 데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이번 정인 양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빼어난 신앙의 갱신을 이뤄내려 한다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 전체의 눈으로 볼 때, 이 일은 단순히 가해자들 개인들만의 범죄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의 불신앙과 부덕함이 입증된 일로 비춰진다.

특히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현재까지도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역자들인 까닭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신앙의 진정성과 윤리적 자질이 근본으로부터 의심되는 상황이다.

순전한 신앙, 윤리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그리고 그런 범죄자들의 악독한 심성을 묵과해온 교역자들과는 명예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분리와 신자들의 이탈은 교회사적 관점으로 볼 때 정당화된다.

한국교회가 이 일과 관련해서 더 이상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런 죄악들이 축적되어 발생할 심각한 내용과 분리, 교세 약화 사태를 방지하려면, 현재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 교역자로서 자신의 자격요건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처신을 감행하든가, 아니면 교단 차원에서 엄정한 권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가해자들의 범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들을 양육한 이들과 교회들의 무책임함은 신앙 양심의 차원에서 치리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Bernard Gribble의 'Mayflower'. 영국 국교회에서 나와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분리주의 회중. ©britannica.com 캡처



나치의 죄악에 동조하는 독일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고백교회 지도자들. 중간열 맨 왼쪽에 본회퍼의 모습이 보인다. ©위키피디아



정인 양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모 장씨가 재판을 받고 나오는 모습. 가해자들 모두 경북 지역 현직 목회자 자녀로 밝혀져 사회와 교계에 충격을 주었다. ©KBS 캡처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저주의 패턴 끊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 패턴을 파악하라



패턴으로 세상을 읽다 이영직 스마트비즈니스 | 288쪽

유행부터 클래식까지, 프랙탈에서 빅 데이터까지! 1% 고수들만 아는 '세상 읽기의 비밀!'

바둑을 두는 당사자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잘나가던 바둑을 욕심 때문에 망치기도 하고, 이겼다고 방심하는 사이에 전세가 역전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발 물러나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둑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인다. 삶의 설계도는 마음을 비우고, 긴 안목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머리로 아는 것과 체득되는 것은 다르다 좋은 것들이 반복되는 삶이 더 행복한 것 크리스천도 저주받을 수 있어, 정신 차리라

자연계에는 먹이사슬 있다. 이 먹이사슬은 생태계가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이다. 먹이사슬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생태계는 파괴되고 만다.

생태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도 멸망한다. 우리가 먹는 농작물의 1/3이 꽃가루받이로 열매를 맺으며 그중 80%가 꿀벌에 의해 수정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이내에 멸망한다고 경고했다.

프로 기사들은 바둑을 둔 다음 대부분 복기를 한다. 자신들이 두었던 수를 순서대로 완벽하게 재현해 낸다. 복기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00여 수에 달하는 바둑알을 정확하게 원래의 위치에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복기가 가능한 것은 프로 기사들의 기억력이 뛰어나서인가? 그렇지 않다.

프로 기사들은 바둑알을 놓은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둑판 전체를 하나의 '의미의 패턴'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둔 바둑은 완벽하게 복기할 수 있지만, 성의 없이 둔 바둑은 복기가 쉽지 않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인다고 말한다. 곧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인생을 남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안다. 세상의 흐름을 알기에 남다르게 살아가는 간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시대적인 환경이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것에 대처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상의 흐름을 패턴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책이 있다. 바로 《패턴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다》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이영직은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한 뒤, 시사영어사 편집국을 거쳐 LG화학 마케팅 팀장과 한국갤럽 기획조사실장을 지냈

다. 지금은 브랜드 컨설팅 대표로 있으면서 경영 컨설턴트와 시장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패턴이란 어떤 형태, 유형, 양식 등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현상을 말한다. 우주에서, 자연계나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회현상에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 고안한 언어, 수학, 과학, 예술과 같은 추상세계에서도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뿐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복잡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끼리 묶으면, 의외로 단순한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곧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패턴이라는 말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패턴의 핵심은 반복과 대칭이다. 어떤 것이든 반복되는 행위는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든 깊이 몰입하면 패턴이 보인다고 한다. 패턴이 보인다는 것은 그 분야의 고수가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의학에 몰입한 사람은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을 거의 진단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구두 수선을 한 사람은 구두가 닳은 모양만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체질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곧 그 분야에 달인이 된 사람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랜 반복을 통해서 패턴을 읽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세상의 흐름을 패턴으로 읽으면 지금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패턴을 소개하고 있다. 자연계 패턴, 사회적 패턴, 사고적 패턴, 생태학적 패턴, 성장과 몰락의 패턴, 진화의 패턴, 인간의 본질과 행동 패턴이다.

저자는 이렇게 다양한 패턴에 대한 지식을 독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독자들이 실제로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 봄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머리로 아는 것과 체득되는 것은 다르다. 안다 해서 그것이 곧바로 체득되는 것은 아니다. 아는 것

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그것이 산지식이 되어 내 몸에 체득이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패턴을 통해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하지만 두 가지를 더 알아야 한다. 첫째, 자신의 삶의 패턴을 알아야 한다.

가만히 보면 나의 삶도 반복이다. 좋은 것이 반복되는 것은 나의 삶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나쁜 것이 반복이 되면 나의 삶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반복은 끊어야 한다. 나의 삶의 패턴을 읽고 좋은 것들이 반복되는 삶을 살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둘째, 성경의 패턴을 알아야 한다. 성경의 패턴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알아야 하는 가장 큰 패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패턴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부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순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5배 가까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는 데만 관심이 많다. 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주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착각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복 받는다는 말씀보다 5배가 더 기록해 놓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저주받을 수 있으니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한 패턴을 알아서, 그 패턴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패턴도 알아서, 그 패턴은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한다. 세상이 흘러가는 패턴도 알고 자신의 패턴도 알고 성경의 패턴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2020년 기독교출판문화진흥기금 우수도서 선정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므로써 오는 교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호남신대학교, 장로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년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진노회장, 총회 근·농어촌 부원,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 기독교농부 농심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학교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신정호 목사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1995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가길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8 한국기독교총회 최우수상, 미전 푸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회 회장, 찬양평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처장,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원봉사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조의 목장평신과 아름다운 순명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열정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목사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감사예배

은혜로
빛으로

30년

With Grace into Light

2021년 3월 11일(목)

10AM-12PM

장소: 은혜한인교회



영상 참여(YouTube검색)

미주복음방송 🔍

